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학교규모는 우리 학교보다 작았으며, 밴쿠버라는 도시는 너무 시원하고 좋은 곳이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첫날 테스트를 통해 일본학생들과 함께 수준별로 수업을 듣는다. 수업은 간단한 회화, 신문 읽기,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강사분은 학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하시며, 억양 하나하나를 차분히 알려주셨다. 과제는 없었고 매일 저널쓰기가 있었지만 거의 자유였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뮤지엄, 밴쿠버투어, 아쿠아리움, 카약킹, 휘슬러 등 다양한 활동을 매주 했다. 카약킹의 경우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긴팔을 가져가는게 좋고 휘슬러는 춥기 때문에 외투나 후드를 입는게 좋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밴쿠버의 여름은 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여름 옷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길에 마약하는 사람들과 한국보다 거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조심해야 한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v)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 가족들은 너무 친절했고 나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셨다. 또한 방과 화장실은 혼자 사용했고 통금도 자유로웠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v) 외부식당(v)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홈스테이에서 먹었고, 점심은 홈스테이 가족이 도시락을 싸주셨고, 저녁은 밖에서 거의 사먹었다. 메뉴는 항상 다르게 챙겨주셨으면 밴쿠버 식당은 한국보다 비쌌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버스하나로 통학할 수 있었고, 밴쿠버는 스카이 라인과 버스가 간편해서 쉽게 다닐 수 있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300000	식비가 약 한끼에 10000이상

캐필라노 브릿지	40000	입장료+차비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밴쿠버의 여름은 한국의 초가을과 같기 때문에 한여름 옷보다는 가을 옷을 챙기는게 좋다. 또한 수없이 수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 동안 너무 행복했고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좋았다. 교환학생을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를 많이 했다. 밴쿠버라는 도시 자체가 매력있는 도시였다. 특히, 같이 수업을 들은 일본친구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지기가 힘들었다. 외국인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되었다. 3주가 정말 짧게 느껴질 만큼 수업이 끝나고 항상 돌아다녔다. 3주는 어학능력이 향상 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하지만 영어를 말하는 데에 거부감이 없어지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한 문장이라도 더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영어사용에 자연스러워 질 수 있었다. 그래서 3주보다는 조금이라도 긴 시간으로 어학연수 파견으로 변경되면 좋을 것 같다. 또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가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휘슬러 곤돌라	휘슬러
	
캐필라노 브릿지	카약킹(딥코브)

	
빅토리아	전망대에서 야경